일본, 화학설비 투자 2년만에 증가

2003년 102사 4618억엔 투자 … IT 관련 증설투자 대기업 등장해

일본은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산업의 2003년 취득설비 투자가 102사 합계 4618억엔을 기록해 저조했던 2002년을 5.2% 웃돌며 2년만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, 일본 국내수요 환경에 대한 신중한 견해 및 이자부채 압축 때문에 설비투자를 감가상각 범위에서 행하는 화학기업이 많으나 대기업 중 IT 관련소재 및 증설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도 있어 전체적으로 2002년을 웃돌 전망이다.

과거 3년 동안 IT 불황 등을 배경으로 2002년에는 전년대비 15.3% 감소했으나 2000년에는 2.2% 증가, 2001년에는 10.0% 증가했다.

2003년에는 IT 관련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유기화학(30사 기준)이 22.6% 증가하며, 기타 화학(38사로 사진필름·화장품·소비생활용품 등)이 15.2% 증가할 전망이다. 그러나 석유화학, 무기화학, 화학비료는 국내수요의 성숙과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라 모두 2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 화학산업의 설비투자실적 및 계획(공사 베이스) (단위: 억엔, %)

구 분	2001-2002년		2002-2003년		증감률	
	2001	2002	2002	2003	2002	2003
화학산업	5,551 (106사)	4,703 (106사)	4,391 (102사)	4,618 (102사)	▽15.3	5.2
석유화학	851 (28사)	1,234 (28사)	1,229 (27사)	999 (27사)	45.1	▽18.7
무기화학	490 (21사)	330 (21사)	330 (21사)	280 (21사)	▽32.6	▽15.3
유기화학	2,040 (32사)	1,319 (32사)	1,117 (30사)	1,369 (30사)	▽35.3	22.6
화학비료	18 (12사)	18 (12사)	18 (12사)	15 (12사)	1.9	▽13.4
기 타	2,153 (39사)	1,802 (39사)	1,696 (38사)	1,955 (38사)	▽16.3	15.2
고 무	599 (14사)	669 (14사)	669 (14사)	796 (14사)	11.7	18.9
플래스틱	531 (30사)	573 (30사)	573 (30사)	554 (30사)	7.9	▽3.4

† 복수부문에 응답한 화학기업이 많아 화학기업 수와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‡ 의약품 제외

투자목적은 생산능력 증설 비중이 38%로 보합세이며, 연구개발이 12.2%로 2002년을 2%p 웃돌 전망이다. 또 합리화·에너지 절약투자도 0.3%p 증가해 7.6%에 달하는데, 환경보호투자는 5.0%로 1.2%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투자자금은 장기자금 운용계획금액이 70사 기준 2002년 5004억엔에서 2003년 3995억엔으로 1008억엔 감소하며 자금조달에서는 감가상각액이 3395억엔으로 보합세, 보류이익은 2148억엔으로 12.1% 증가할 전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10>